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고동현 · 인천 석남서초등학교 5학년

엉뚱한 고동현, 바른생활 고동현, 이건 모두 내 별명이다. 그림이나 글짓기를 하라고 하면 내용이 엉뚱하다고 생긴 별명과 뭐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한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학교에서 미래도시 그리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로봇이나 날아가는 자동차를 그렸는데 나는 흙과 나무를 그렸다. 친구들도 다 웃었고 나는 상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께 말씀드리고 내 그림을 보여 드렸다. 역시 엄마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바로 알아보셨다. 미래도시라면 지금보다 잘 살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무가 많은 환경이 깨끗한 도시를 그렸는데 우리 엄마만 알아보셨다.

지난여름에 내가 너무 더워서 짜증을 내니까 엄마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나오는 동영상이란 지구가 아프다는 동요를 알려 주셨다. 동요를 듣고 나서 ‘지구는 빗을 옷도 없는데’라는 가사가 자꾸만 생각났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뜨거운 지구가 아파하는 내용이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들만 우리가 잘 지켜도 지구가 덜 뜨거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만 보, 아빠는 이만 보 걷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엄마랑 장 보러 갈 때 엄마, 누나, 나는 각자 장바구니를 꼭 챙겨 간다. 커피를 좋아하는 엄마는 가방에 텀블러도 꼭 챙기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우리 가족은 우리 자연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아름다운 우리 자연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셨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 새까맣게 변한 태안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다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도 해 주셨다.

이제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미래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말이다.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해 주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모두 인공지능이 다 해 주는 것이 미래도시에는 맞겠지만 나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도시를 만들고 싶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처럼 흙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안심하고 뛰어 놀고 더워서 죽는 사람도 없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다. 한 달에 한 번 식목일을 만들어 나무도 많이 심고 모든 국민이 환경을 살리고 지키려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환경 지킴이가 되도록 해야겠다.